



곡성 심진강 기차마을

곡성군, 남원·화순 리조트와 ‘맞손’... 숙박 한계 극복

남원 켄싱턴리조트-화순 금호리조트와 협약 체결 관광객 유치·할인 혜택 제공·마케팅 등 적극 협력

곡성군이 지역 내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대형 숙박시설과 힘을 모았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남원 켄싱턴리

조트, 화순 금호리조트와 각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곡성의 대표 관광지인 ‘심진강기차마을’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해 당일 관광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인근 지자체의 풍부한 숙박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호 할인 혜택 제공과 공동 홍보 마케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두 리조트 이용객이 심진강기차마을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를 비롯해 증기

관차, 레일바이크 탑승료를 각각 30% 할인해 준다. 각 리조트 역시 기차마을을 거쳐 온 관광객들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다. 남원 켄싱턴리조트는 기차마을 이용객에게 숙박 이용 시 조식 1+1, 웰컴 드링크 2잔,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곡성군민과 곡성군청 직원들을 위

한 제휴 할인가를 별도 적용하며, 지난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리조트 숙박과 기차마을 입장권을 결합한 기획 패키지 상품을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화순 금호리조트는 기차마을 입장권을 지참한 관광객에게 대표 액티비티 시설인 아무아나(워터파크) 30%, 온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화순 금호리조트의 경우 이용일 기준 다음 날까지 할인이 인정되어 양 지역을 오

가는 여유로운 여행 동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자체 간의 경계를 넘어 인근 시군의 우수한 숙박 인프라를 공유함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체류형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검은 반도체 ‘장흥 김’ 수출 본격화

장흥군·장흥무산김·K-글로벌 푸드 업무협약 생산·품질 관리·세계 10개국 유통망 확보 협력

검은 반도체 ‘장흥 김’ 수출을 위해 3개 기관이 뭉쳤다.

장흥군은 최근 장흥무산김㈜, K-글로벌 푸드와 함께 장흥무산김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흥군과 장흥무산김 관계자, K-글로벌 푸드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해 장흥무산김의 세계시장 진출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대한민국 김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수출 효과 품목인 이른바 ‘검은 반도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K-김 열풍의 중심에 선 ‘장흥무산김’은 산 채리 없이 오직 자연의 햇빛과 청정 해풍으로 길러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친환경 김의 대표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흥무산김은 우수한 맛과 향,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의 모범 사례로도 인



장흥군은 최근 장흥무산김, K-글로벌 푸드와 함께 장흥무산김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받고 있다. 이번엔 장흥군과 손을 잡은 ‘K-글로벌 푸드’는 대한민국의 우수식품(K-Food)을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0개국에 전문적으로 수출하고 유통하는 글로벌 총판 플랫폼 기업이다.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탄탄한 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장흥무산김의 안정적인 생산·품질 관리, 세계 10개국 대상 맞춤형 마케팅·유통망 확보, 글로벌 K-푸드 시장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장흥무산김이 세계 10

개국 유통망을 보유한 K-글로벌 푸드와 협력하게 되면서 글로벌 프리미엄 식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장흥을 대표하는 무산김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K-푸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 수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10년 연속 선정

영광군의 대표 친환경 쌀 브랜드인 ‘사계절이 사는 집’이 10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전남도가 쌀 품질 향상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군이 추천한 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품종 혼합률, 중곡수 오염도, 식미 평가 등 분야별 전문 분석기관의 엄격한 블라인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계절이 사는 집’은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역 친환경 재배단지 및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쌀로,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적용해 재배한 것이 특징이다. 또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시설에서 가공·유통돼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으며, 대도시 소비자를 로부터도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도정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배급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효소품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10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은 농업인과 영광통합 RPC,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광 쌀이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

강진 ‘불금불파’ 행사 일부 조정한다

13일까지 휴장 19~20일 엔딩행사 준비 총력

강진 ‘불금불파’ 행사가 농번기로 인해 일정이 일부 조정된다. 군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운영 예정이었던 ‘불금불파’ 행사를 농번기 운영 여건을 반영해 일부 일정을 조정한다.

군은 농번기철 불고기 판매 운영 어려움에 따라 5일부터 13일까지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오는 19일~20일 열리는 ‘불금불파 엔딩행사’ 준비에 총력을 행사하며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이번 엔딩행사에서는 지역 대표 메뉴인 ‘불고기 반값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보물찾기와 랜덤 게임

등 현장 이벤트를 운영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하멜촌 맥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공연, 지역가수 공연과 EDM DJ 무대를 연이어 선보이며 특별가수 초청 공연까지 더해 초여름 밤의 즐거움을 한층 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번기철 군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잠시나마 시원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 운영시간, 장소, 세부 프로그램 및



올해 열린 강진 불금불파 개장 모습

사진제공=강진군청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강진군 공식 안내 채널을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번기철 불고기파는 6월 5일부터 13일까지 휴장하게 됐

다”며 “오는 19~20일 엔딩행사에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gwangnam.co.kr

순천, 공원·녹지 등 528개소 집중 정비

녹지관리 시스템 가동

순천시는 계절별·권역별 녹지관리 체계 기반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도시숲, 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등 총 528개소를 대상으로 2회차 풀베기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시기를 세분화해 예초와 환경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제적 녹지관리 시스템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시는 단순 민원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계절별 생육환경과 현장 여건을 분석해

정비 시기를 사전에 계획하고 권역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원과 녹지 공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15일간 1회차 풀베기 사업을 추진해 공원, 녹지대, 도시숲, 가로화단 등에 대한 환경정비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여름철 잡초 생육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2회차 사업을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연중 녹지관리 계획에 따라 풀베기와 환경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나 쾌적한 공원과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